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 영광 앞당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한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주한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권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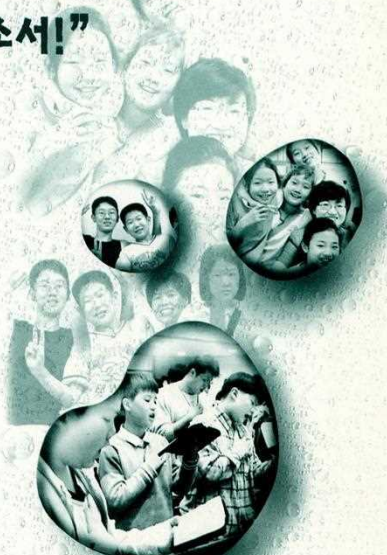
중등1·2·3부 연합수련회, 내일(25일)부터 화요일(26일)까지 “십자가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딤후 1:3)이란 주제를 가지고 중등 1·2·3부가 본 교회에서 연합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등부에서 20개 팀 223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선교를 나가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더욱 영적인 은혜가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련회 기간 중에도 선교를 나가는 팀들이 많이 있어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여름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중등부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들의 수련회처럼 재미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심의 수련회였지만,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눅 15:10).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은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팀별로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있을 선교를 앞두고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25일)부터 중등부 연합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한 이삭(창 22:6-10)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선포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단 1:7, 8)처럼 믿음을 지키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십자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등부 연합수련회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말씀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 제1교육관 / 시간 : 10:00~20:00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일)】

지속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악의 해결은 중간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다. 천당과 지옥뿐이다(창 20:1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형벌에 붙여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체로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인간들은 즉,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 구원론의 주된 견해이다.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는 죄를 지은 자들, 반역하는 자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님의 중간인 신약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는다. 신약은 지옥을 가리켜 “영원한 형벌”이라고 설명한다(마 25:46). 별레초차도 죽지 않으며 불이 소멸되지 않는 곳이라고도 언급한다(막 9:48). 그곳에 가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마 25:30). 또한, 지옥에 대해 “영원한 불”이라고 설명한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마 25:41).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 지옥을 수치스런 자들이 가는 곳 즉,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설명한다(유 1:13, 마 8:12).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감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신다(마 8:11). 비록 역시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마 18-9). 지옥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악이 어떠한 형태든 계속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계획을 영원토록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신 29:29). 하나님께서 악을 그 계획 안에 포함시켰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창조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의 의지로 응답하는 피조물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창 5:13).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을 가져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또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가장 좋은 계획이 사탄하고 반역하는 피조물들을 그들의 파멸로부터 구하여 내실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인들을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죄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 없으며 또한 구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체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없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목적에 달하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보여 준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모두 참된 것이며 죄악에 대해 해결 못 할(이해 못 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것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릎 꿇게 될 것이다(렘 26:11). 누구에게나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제의 지옥에 빠진 아무라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부를 수 없고 천국에서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계 2:11, 4).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주 대가를 모두 아셨고 또 지불하신 것이다(계 4:11).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계 5:9-10). 하나님의 계획이신다(계 5:13).

악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에 대하여 자신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악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겠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갈 5:16). 하나님의 은사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최선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벧후 3:18). 개인적인 고통과 질병, 죽음에 관한 일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 공경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무지비하고 잔인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목적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이다. 환경에 대항하게 처하자. 고통에 목적하심을 기억하자(렘 22:20-21). 또 고통이 올 것도 기다려야 한다(렘 4:13-14). 고통은 침시편이요, 영원한 것은 아비(창 8:8).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바로 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통을 당하신 최고의 본사이다. 그가 어떻게 이를 대하였는지 기억하자(렘 22-23).

WHAT IS THIS YOU HAVE DONE?

⁽¹⁾ Now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 from Gilgal to Bochim. And he said,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and led you into the land which I have sworn to your fathers; and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²⁾ and as for you, you shall make no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you shall tear down their altars. But you have not obeyed Me; what is this you have done? ... ⁽⁵⁾ So they named that place Bochim; and there they sacrificed to the LORD. (Judges 2:1-5)

In today's Bible verses an angel of the Lord, which means the presence of God, came before Israel to talk with them about their disobedience. Now, this day, the Holy Spirit comes to us, so that we can receive the word of Go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The Israelites in today's message let God's word sink deep down, so that it could change their bad hearts. All too often, believers hear God's word and acknowledge their wrong doings, even to the point of saying sorry, but they do not let it penetrate their hearts. Their superficial handling of it is detrimental, not beneficial. When you disobey God and the Holy Spirit makes you aware of your sin, how do you answer God?

The word of God that comes to us is a work of grace. The angel of the Lord told Israel,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and led you into the land which I have sworn to your fathers; and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v. 1). The Israelites did nothing to deserve God's favor. In fact, they deserved His punishment, but God still gave them His promised land, along with freedom, peace, and power. When Paul rebelled against Jesus, He met him at Damascus and said,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Acts 9:4)? Even though Paul had rejected Jesus, Jesus still loved him and made him His own servant. Jesus gives all believers the privilege of becoming God's children and receiving eternal life. Romans 11:29 says,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Even when we fail, God never changes or breaks His promise, "My covenant I will not violate, nor will I alter the utterance of My lips"(Ps. 89:34). His gift of grace is free, always free, but it comes with one condition, "you shall make no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you shall tear down their altars"(v. 2). In other words, believers cannot compromise with the world's valuable things. A servant of Jesus Christ must listen, obey, and believe in God's word, for it is through His word that we receive His grace.

A believer's failure is a result of his or her disobedience to God's commands. The angel of the Lord told Israel, "But you have not obeyed Me"(v. 2). When we stop hearing God's voice, only hearing our own earthly voice, it is because earthly things are more important to us. When we value earthly things more than godly things, we do not listen to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is so important to your life. Sometimes you do not see it right away, but if you search, you will find it and discover the most valuable of all treasures. 2 Peter 1:20-21 reminds us, "But know this first of all,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for no prophecy was ever made by an act of human will, but men moved by the Holy Spirit spoke from God." Every word from God is a great word. Hebrews 4:12 says,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and piercing as far as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of both joints and marrow, and able to judge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Please do not try to deceive God, for God knows whether you obey or reject His word. Please do not pretend. Please do not act like a hypocrite.

The angel of the Lord presented Israel with a real question, "what is this you have done?" He gave them the question so they could think about it and judge for themselves whether they obeyed God's word. When you think about why you did what you did, you should give an honest answer to God. If you make excuses, Telling God that you actually have a guilty feeling inside but the world outside is stronger and you need to compromise in order to survive, then you are lying. If you tell Him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your compromises, then Jesus does not live in your heart, but you live for yourself. Paul confess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d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If you confess this, but live differently, then you are playing a game of make believe. In order to receive grace, you must truly believe.

"It came about when the angel of the Lord spoke these words to all the sons of Israel, that the people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So they named that place Bochim; and there they sacrificed to the Lord"(vv. 4&5). Israel answered God's question with real tears, and they recovered His grace. They cried and repented, and God saved them. After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he remembered what Jesus had told him,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Mt. 26:75). He made a mistake and realized it, and his true confession saved him. When you hear God's voice, you start crying and repenting, and then worshipping. 2 Corinthians 7:10 says, "For the sorrow that i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produces a repentance without regret, leading to salvation, but the sorrow of the world produces death." After Israel cried in repentance, they worshipped. Sometimes we hear God's voice and then we cry and we say sorry, but that is not enough. You have to repent in order to recover. You have to reconcile yourself to the Lord. You have to worship Him,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Ps. 51:17).

My dear friend, God is waiting for your answer. Please be honest and answer Him sincerely. Think about what you did. Are you really obeying His word? After you cry, what kind of answer do you give to the Lord? Peter repented of his sin. Many Christians say they are sorry, but it does not have any meaning. Jesus paid for your sin. He suffered greatly, and gave up everything for us. I want you to be serious, so that God can change you just as He did the Israelites in today's passage. We become Israelites, which means God's children, when we obey God's word. Please listen to God, not the devil. Please obey and trust God by denying yourself and following Him, "and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1 Jn. 3:22). If you really answer God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you will get that answer! If you are not serious, you bring condemnation upon yourself. 

그리함은 어쩔이뇨?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쩔이뇨 ...”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삿 2:1-5)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만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외식적인 태도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때때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은총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1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다. 사실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함께 자유, 평화, 세력까지 허락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대항했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를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 바울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함께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29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바꾸시거나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다”(시 89:34). 하나님의 은총은 잊을 수 없이, 언제나 아무 대가없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2절). 다시 말해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2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오직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목소리만 더 크게 들려올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가치를 곧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만약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희화보다 더 귀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20, 21은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4:12은 말씀의 능력을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이니 모든 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을 속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대적하는지 아십니다. 겐으로만 그럴 듯하게 보이며 하지 마십시오. 우선사치하며 행하지 마십시오.

은총의 기회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함은 어쩔이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판단을 내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아 남으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 변명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이해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20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 여러분이 믿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진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총의 회복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4, 5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3째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까(26:75).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이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먼저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10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곧잘 울면서 부우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회복하려면 죄에서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어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옳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재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시’라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2).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로 칼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12교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엡 2:22)



원웅철 (12교구장)

12교구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비롯하여 고양시(일산), 파주시, 문산시, 양주군(강릉면) 등 서울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총 332세대 797명의 등록교인이 8지역 29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6월 말 기준). 지역이 넓어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에도 많은 이동을 해야 하고 교회까지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두세 번씩 차를 갈아 타고 오는 일은 예사입니다. “먼 곳에서 오니 은혜도 갑절로 받아요.” 하는 어느 분의 간증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금요 집회나 특별 새벽기도회, 청지기 훈련에도 많은 교구 식구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 한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12교구는 올해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엡 2:22)를 주제 성구로 삼고, 교회의 5대 목표를 온 교구 식구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로 하였습니다. (1)구역모임 및 각종 집회 참석 활성화 (2)영성훈련 실시 (3)단기선교 적극 참여 (4)국내 및 교회 주변 전도 (5)새가족 양육 (6)친교 및 구역모임 활성화 (7)남성구역 모임 활성화 (8)금요집회 교구 찬양 준비 (9)교회 봉사활동 (10)사회적 운영(경조사 담당) (11)교구 찬양대 운영을 구체적 내적으로 하고, 각 항목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연중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는 3월에 이미 금년도 목표를 초과하여 팀 구성을 완료하여 4개 팀이 이미 사역을 마쳤고, 6개 팀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 탐방 고집하지 않고 형편에 맞는 팀을 찾아 사역하는 교구 흥성팀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한 사람이라도 나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년에 1인 1명 이상 전도를 목표로 하여 지난 3월 새가족 초청 집회를 열어 많은 새가족을 맞이하였고 이들을 위해 교구 자체 양육팀을 구성하여 문서선교를 통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회들이 걸어 온 2005년의 행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명령에 붙들었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앞장세우신 일꾼들의 잘못이 큰 것으로 생각되어 교역자, 장로, 지역장기 기도원에 모여 모든 책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자신들에게 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교구 식구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충성된 일꾼들로서 거듭나고자 모든 교구 일꾼들이 참석하는 ‘일꾼 영성훈련’을 실시하여 회개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삼상 7:6).

앞으로 우리 교구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했던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와,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대학부 수련회를 마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수련회는 공동체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구별된 공동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였다. 둘째 날에는 ‘예배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내가 그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경망스럽고 성의 없었는가를 회개하게 하였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성령 공동체’로 진행되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살피보는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과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 계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습과 형편에 관계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 맡은 준비되지 못했고 사모하는 마음도 적었고 내 죄의 문제로 낙심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해 주시니 감사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비록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했을 지라도 그 순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생명이 거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정말 더럽고 강박하고 아직도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의 맘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히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과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신 것들을 기뻐한다.

이선민 (대학부)



은총의 기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마 1:1), 약속된 메시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결한 모습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돌아온 소중한 수련회였다. 대학 4학년, 곧 사회 생활을 앞둔 나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에 치이고 나만의 욕심에 치여 머

론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 매번 죄에 빠

지며 겨우 겨우 신앙만을 지켜 나가는 무기력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너무나 하나님에 감사했고, 너무도 내 자신이 답답했기에 이번 수련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은총의 기회였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야곱의 아내 레아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라헬에 비하여 너무도 보잘것 없었던 레아,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라헬에게 많이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보다 먼저 아이를 갖는 축복을 주었다. 레아의 모습을 보니 나와 참 유사하다고 생각되었다. 너무도 보잘것 없고 어리석은 존재,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불러 주었다. 매년 세상의 죄에 무너지는 바보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완벽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처럼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 뻔하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순간 정말 감사하고 고스리었다. 나를 찾아 주신 주님이 감사했고, 매 순간 나를 질책하듯 만하였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들어갈 때는 혼자였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나온 지금, 내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사 드린다.

이제부터 나의 모습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믿는 자로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보여 주신 길인 듯하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복희 (대학부)

우리를 뜨겁게 하신 하나님

사역 기간 내내 경건회를 통하여 팀원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다. 팀원 모두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성경 말씀을 10장씩 읽히는 팀장이 사심은 미웠다. 피곤한데 억지로 일어나 성경의 작은 글씨를 읽는다는 것은 훈련이 안 된 권사님들이나 나 자신에게 몹시 힘들었다. 그렇게 새벽마다 성경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기를 했다. 기도 제목을 주고 통성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제목과 주고 다같이 통성기도 하고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기도한 후에 팀장의 기도가 시작된다. 우리 팀장은 울보였다. 기도시간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모두 주 기도에 '아멘아멘' 하였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경건회가 폐하될 우리 모두 팀원들은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서 다시 세수를 해야만 했다. 이 새벽 시간이 나에게도 힘들었으나,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새벽마다 우리는 성경을 10장씩 읽고 기도 할때에 팀원 모두가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염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김성자 (집사, 16교구)

벽찬 감동으로 전한 십자가

일할 수 없는 밤은 속히 오고 있기에 이번이 마지막 선교라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복음적인 선교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팀원들을 격려하고 준비했다.

벽을 타고 다니는 도마뱀과 골목길의 돼지와 개를 그리고 다운 날씨, 수많은 파리 떼와 소들..... 살삼이 집집을 누볐던 축호사역 중 20명의 자손을 모아주셨던 할머니, 일곱 군데 친척집을 직접 안내해 주었을 뿐 아니라 70여 명의 학교 친구들까지 운동장에 모아 주었던 모히드, 마을 중앙 놀이터에 20여명의 어린이를 모아 주었던 듀셀, 부락하지도 않았는데 호텔까지 오도마리로 태워주었던 소름, 그리고 대학교 사역 등은 감사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덩치 크고 교만한 지역 사람들의 위협스런 킥박이 몇 번 있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다. 십자가 복음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십자가를 전하였다.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의 선교는 성령의 임박함을 체험케 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것을 겉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였으며,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의 현장 속에 있게 하였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한 제자처럼 나도 벽찬 감동에 떨며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은혜로 담대히 전하였다. 이제 그곳의 영혼들도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을 이어갈 것으로 믿고 기도할 뿐이다.

정원근 (안수집사, 12교구)

바울처럼

사역지로 이동하는 차장 밖의 풍경은 이곳이 산도 물도 없는 척박한 동토임을 알려주듯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곳 사람들을 생각하니 서글펐습니다. 숙소를 정하고 첫 사역을 시작하며 한족과 몽고인을 대한 나의 가슴은 흥분되었습니다. 우리와 정발 똑같은 그들의 모습에서 깊은 정이 우러나왔으나, 그들의 생활에 깊이 묻어 있는 빈곤과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에 울적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무 하나 없는 산 정상에 올라보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라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바울이 아시아 전도여행을 하며 겪었을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전도하며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니 오늘날 나의 이 고통은 너무도 호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밧집 리길 걷는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혀 피곤치가 않았습니다.

주님! 약한 때 강한 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기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여 입술로만 고백했던 내 자신을 단기선교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중을 사랑하여 주시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직접 체험하게 하십시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정옥 (집사, 5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중 · 고등부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고등부(가)	박준근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3)	윤혜균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고등부(나)	최영길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2)	주순희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고등부(다)	강신현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3)	박영섭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1)	장기환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4)	한준봉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2)	박익구	7월 30일(토) - 8월 6일(토)	고등부(하)	홍순길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등(3)	장기락	7월 30일(토) - 8월 6일(토)	고등부(아)	김승곤

*중 · 고등부 선교팀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팀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모집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히 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기도회: 매주일 오후 4:00-4:40, 갈릴리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대학부(2)	이기욱	7월 27일(수) - 8월 5일(금)	1교구 4지역	윤선한
7월 25일(월) - 8월 3일(수)	13교구 1지역	임연수	7월 27일(수) - 8월 5일(금)	2교구 2지역	문홍우
7월 25일(월) - 8월 3일(수)	6교구 5지역	이서영	7월 27일(수) - 8월 5일(금)	6교구 8지역	안상직
7월 25일(월) - 8월 4일(목)	102교구 6지역	강민호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7지역	유종석
7월 28일(화) - 8월 2일(화)	청년(2)	최창하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11지역	신선길
7월 28일(화) - 8월 3일(수)	6교구 1지역	박광식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8교구 2지역	김홍기
7월 28일(화) - 8월 3일(수)	6교구 3지역	이병두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2교구 추기2	한예현
7월 28일(화) - 8월 3일(수)	대학부(2)	이복희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6지역	최민석
7월 28일(화) - 8월 3일(수)	6교구 3지역	김태현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4교구 1지역	최종진
7월 28일(화) - 8월 4일(목)	9교구 7지역	김태현	7월 28일(목) - 8월 6일(토)	16교구 추기2	김병만
7월 28일(화) - 8월 4일(목)	7교구 5지역	전계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4교구 1지역	이상석
7월 28일(화) - 8월 4일(목)	6교구 6지역	김현철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교구 2지역	이보신
7월 28일(화) - 8월 4일(목)	대학부(3)	이복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6교구 1지역	김승수
7월 28일(화) - 8월 4일(목)	대학부(3)	조영구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1교구 4지역	박찬서
7월 28일(화) - 8월 5일(금)	17교구 2지역	유재훈	7월 29일(금) - 8월 6일(토)	외선부(2)	장병준
7월 28일(화) - 8월 5일(금)	17교구 7지역	문경안	7월 29일(금) - 8월 6일(토)	8교구 1지역	김함남
7월 27일(수) - 8월 3일(수)	에베라(1)	안준오	7월 29일(금) - 8월 6일(토)	대학부(23)	예정호
7월 27일(수) - 8월 3일(수)	에베라(2)	윤명범	7월 29일(금) - 8월 6일(토)	청년(24)	정철환
7월 27일(수) - 8월 3일(수)	17교구 3지역	이호일	7월 30일(토) - 8월 6일(토)	청년(17)	김중선
7월 27일(수) - 8월 5일(금)	2교구 4지역	이영환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1일(월) - 7월 20일(수)	4교구 3지역	박원희	7월 13일(수) - 7월 22일(금)	대학부(30)	한용배
7월 11일(월) - 7월 20일(수)	대학부(24)	이근호	7월 13일(수) - 7월 22일(금)	대학부(29)	김형곤
7월 12일(화) - 7월 21일(목)	2교구 1지역	박상대			

교회가 정말 좋다

새 유치부실로 옮겼을 때 나는 말미암이 시원했다. 그래서 기분도 좋았다. 선생님도 세전보다 더 잘해 주시는 것 같다. 나도 성가대에서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겠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다. “하나님, 정말 신나고 좋아요.” 공과 공부도 더욱 좋다. 성경 암송도 세전보다 더 잘해야겠다.

새 유치부실은 새하얗고 바깥이 출출 들어오면서 성경 공부도 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온다. 왜지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 난 교회가 정말 좋다. 세수님이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난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



김은예 (유치부)

믿음이 이기네



나가라 한다.

우리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려는가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저 북방 땅으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가라 한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겁도 나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그 뒤에 서서 순종하며 복음 들고 가련다. 피부 색깔, 언어, 모든 것이 틀리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이은혜 (중동1부)

새가족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

새가족 양육부의 수료식이 있었다. 순서에 수료자들의 수료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수료자들은 수료하기까지 지난 6개월 동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가며 담담히 얘기하였다. 그 얘기를 들으며 처음 온 사람이나 몇 달 다닌 새가족부 석구를 모두 가슴 뭉클하게 했다. 수료자들 가운데 한 성도는 수줍어서 말을 못 하였지만 참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분이 만난 주님이 궁금해 물어보았다.

박경순 성도는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왔다고 했다. 집안 석구를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던 셋째 동서가, 7년 전 병을 얻어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던 남편에게 교회에 다니 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교회에 나갔고, 박경순 성도는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해부터 남편의 병이 심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 간호에 매달렸다. 남편과 같이 지내다 보니 교회까지 함께 다니게 되었고, 이년에 24주가 지나 수료를 하게 되었다.

게 되었다.

사실 새가족들이 수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박경순 성도는 병이 심해진 남편이 아직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해 주신 거라고 고백한다. 비록 남편이 병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들 건강하길 바란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경순 성도의 가정은 병 중에 복음을 영접하는 진가를 받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났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 제가 여기 이곳에 있는 거겠지요!” 주님을 향한 박경순 성도의 순전한 고백이었다.

정리 / 오미라 (새가족부)

부족한 나를 쓰시는 주님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붙잡고 주일마다 교회에 왔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 땐 가족도 다 교회에 다녔고 모두들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해져서 생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마저도 중학생이 되어서는 바뀌었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귀찮아졌고 교회 오는 시간에 잡자는 게 더 좋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던 제가 고등부에 오면서 많이 변하였습니다. 소그룹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교회에 더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학생회에서 봉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도 없던 저는 많이 부담이 되었고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등부 학생회”라고 해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해서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고 저는 그 시련으로 인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생회에서 봉사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더욱더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 곁에서 걸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거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전선아 (고등부)

말씀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직 이리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

정정하 (중동2부)



박경순 성도

교회 탐방 73 15교구 자원봉사자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자원봉사(엡 4:12)의 손길은 과거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자원봉사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찾아다. 15교구 자원봉사자,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체에 주목해보자.

자원봉사는 조직과 담당 구역은?

팀장 1명과 각 전도의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성문 안수집사, 팀장)

봉사 구역은 선교와 전제입니다. 각 층별 복도는 물론 화장실까지 청소하며, 지하 식당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집사)

자원봉사는 언제 마나요?

여성도들은 주로 주요일 교구 영성훈련 후에 1시간 가량 봉사합니다. (코복심 권사)

남 성도들은 주로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자원해서 참여합니다. (조성문 안수집사)

자원봉사는 얼마나 하셨나요?

권역을 받아 5월부터 지금까지 매 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심 집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복심 권사)

자원봉사를 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청소하면서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조우자 집사)

교회 가나와 집이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 후에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오영심 집사)

생각보다 어렵거나 부담스러웠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즐겁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집사)

자원봉사를 통해서 교구 식구들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코복심 권사)



자원봉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분한 걸려를 손으로 뽀고 닦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대하는 참성도의 모습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코복심 권사)

팀 구성에서부터 모두가 역할을 잘해 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교회 구석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봉사 후부터는 교회의 모든 곳을 예사처럼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집사)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동안 교회에 무관심했다는 생각에 회개도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먼지들을 청소하면서 교회를 깨끗이 한다는 생각에 즐겁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조성문 안수집사)

사실 그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영심 집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모두가 철저히 자원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청소를 해 봐야 교회가 소중할 줄 알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귀한 일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조성문 안수집사)

다 함께 기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벽의 아가씨가 들어 보아도 모든 교구들이 협력해서 섬기고 있어서 기쁩니다. (코복심 권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당여야 할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에 우리 교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정화 집사)

더욱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자 집사)

이들은 한자로 자신들은 자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리고 모든 교구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특별히 자신들의 교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의 말씀이 떠올랐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있고 오직 여러 체제가 서로 갈아엎어 줄라 보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5-27). (권진실)

다음주일 찬송

192장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이 찬송은 캐리 브렉 (Mrs. Carrie B. Breck, 1855-1934) 여사가 작사하였고 그랜트 콜팩스 툴라(Rev. Grant Colfax Tuller, 1869-1950) 목사가 작곡한 곡으로 원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Nailed to the Cross)"이다. 작사 또는 작곡의 배경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1절은 설교와 같은 교백적 찬송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쓸모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죽음을 자초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삼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다.

후렴은 주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원하셨으니 회개 없이 자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들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기꺼이 사하시기 위해 버리시겠다. 이 노래는 십자가의 기쁨을 찬양한다.

2절은 권력자이신 2장 20절 삼바탄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결과 이제는 내사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 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찬양한다. 그 속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3절은 시편 19편 14절 말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노라"의 간절한 호소가 이 찬양에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즐거워 기뻐하며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쉬지 않으리라는 의지적인 신앙을 교백하며 이를 찬양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영혼을이었다. 그리스도의 값으로 십자가에 아니면 우리는 지옥의 무수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힘있게 찬양하는 모든 성도가 되자. (한양원회)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197	김정현	2	최나래	2224	김지영	8	최나래	2251	박정현	10	최나래	2278	주재은	9	고동부
2198	김정현	11	최나래	2225	신동원	9	대북부	2252	신동원	10	최나래	2279	박지현	9	고동부
2199	이영미	9	대북부	2226	이영미	9	대북부	2253	김민수	12	최나래	2280	윤수진	9	최나래
2200	김지영	9	최나래	2227	박지현	9	대북부	2254	김민수	12	최나래	2281	최승진	9	최나래
2201	박정현	14	최나래	2228	정성환	9	고동부	2255	김민수	12	대북부	2282	김수호	9	최나래
2202	전유리	9	고동부	2229	이영미	11	최나래	2256	박정현	9	최나래	2283	윤수진	9	최나래
2203	윤수진	12	최나래	2230	김민수	12	최나래	2257	사은	9	고동부	2284	이영미	9	최나래
2204	김정현	12	최나래	2231	김민수	12	최나래	2258	김민수	12	최나래	2285	박지현	9	최나래
2205	김정현	12	최나래	2232	이영미	14	최나래	2259	김민수	12	최나래	2286	김민수	12	최나래
2206	이영미	9	최나래	2233	이영미	14	최나래	2260	김민수	12	최나래	2287	김민수	12	최나래
2207	오영미	8	최나래	2234	김민수	12	최나래	2261	김민수	12	최나래	2288	박지현	9	최나래
2208	신동원	9	고동부	2235	김민수	12	최나래	2262	신동원	9	고동부	2289	박지현	9	최나래
2209	박지현	9	고동부	2236	이영미	14	최나래	2263	한지현	9	고동부	2290	최지현	9	고동부
2210	조지현	9	고동부	2237	정성환	7	최나래	2264	박지현	9	고동부	2291	김민수	12	최나래
2211	김민수	12	최나래	2238	김민수	12	최나래	2265	김민수	12	최나래	2292	박지현	9	고동부
2212	한지현	9	고동부	2239	김민수	12	최나래	2266	김민수	12	최나래	2293	김민수	12	최나래
2213	이영미	9	고동부	2240	이영미	14	최나래	2267	김민수	12	최나래	2294	이영미	9	고동부
2214	이영미	9	고동부	2241	박지현	9	고동부	2268	김민수	12	최나래	2295	김민수	12	최나래
2215	이영미	9	고동부	2242	최지현	4	최나래	2269	신동원	9	고동부	2296	박지현	9	고동부
2216	김민수	12	최나래	2243	김민수	12	최나래	2270	김민수	12	최나래	2297	정성환	7	최나래
2217	윤수진	9	고동부	2244	김민수	12	최나래	2271	오영미	9	고동부	2298	오영미	9	고동부
2218	박지현	9	고동부	2245	김민수	12	최나래	2272	정성환	7	최나래	2299	이영미	9	고동부
2219	최지현	9	고동부	2246	이영미	14	최나래	2273	이영미	9	고동부	2300	김민수	12	최나래
2220	김지현	9	고동부	2247	신동원	9	고동부	2274	정성환	7	최나래	2301	김민수	12	최나래
2221	박지현	9	고동부	2248	박지현	9	고동부	2275	신동원	9	고동부	2302	이영미	9	고동부
2222	이영미	9	고동부	2249	신동원	9	고동부	2276	이영미	9	고동부	2303	정성환	7	최나래
2223	박지현	9	고동부	2250	김민수	12	최나래	2277	이영미	9	고동부	2304	김민수	12	최나래

※ 추천교회와 한 교회에 3회를 넘어서는 분은 본교 2025 새가족 등록식도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31일(다음주일) 15:00
장소: 갈릴리움
2. 권사회 3, 4지회 월례회
일시: 27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결혼

1. 고기현 군 (고영국 타교안수집사, 최병목 타교인사의 아들, 타교회)과 이삼은 양 (이계옥 집사, 황신혜 권사의 딸, 6교구) / 30일(토) 15:00 사랑의교회

별세

1. 최순섭 씨 (최규 권사의 친정부친, 정영현 집사의 장인, 18교구 상원 7교구) / 21일 별세, 23일 장례

◆ 전도회 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7월 3일(주일) ~ 7월 31일(다음주일)

대상 기간 : 2005년 1월 ~ 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교회직원 모집

1. 모집부문 경비직 (약간 명)
2. 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이하)
3. 제출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02-552-8200 (#403)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주일)
설교자/기도자	정진호/김승곤	이희식/박성명	하종철/허명호	김익환/양승길	장 훈/유상태	임현덕/조옥자	안창덕/장덕필

예배담당 안내 (7/27-7/31)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도	설 교
7/27	수요 I	오 신실하신 주 (조산나 찬양대)	정현민	이경현	구원과 장아 (교전 10:1-13) 안창덕 목사
7/27	수요 II	여백 위함이 있으시 (설교안 찬양대)	김해식	전순수	예수는 그리스도다 (행 5:42) 김성훈 목사
7/29	금요절회	비올라 이절릴 알토 이상민 테너 유종훈	양재용		김성관 목사
7/31	주일 I	(예배 전 찬양)	장성명	장승규	그리함은 어떨까요? (사 21:5) 이계영 목사
7/31	주일 II	내 맘에 란 노래 있어 / 불꽃노래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이경준	전종용	그리함은 어떨까요? (사 21:5) 조규호 목사
7/31	주일 III	예수가 우리를 부르노 소리 / 불꽃 감동 (합창팀 오케스트라)	고광환	김장국	그리함은 어떨까요? (사 21:5) 김성관 목사
7/31	주일 IV	나 최중에 해메와 / 불꽃 감동 (합창팀 오케스트라)	정종훈	김연근	그리함은 어떨까요? (사 21:5) 이종대 목사
7/31	주일 V	내 나라 위하여 / 새아름침 이슬 (비열 오케스트라)	최종철	이성희	그리함은 어떨까요? (사 21:5) 양재용 목사
7/31	주일찬양	중등부 연합 찬양대 / 임마누엘 찬양대	안치원	박종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교구 9:15)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 화, 목요일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 (목요일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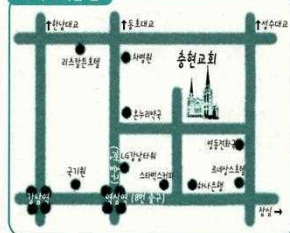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망 부	오후 12:15	갈 리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배다부	오전 9:00(화, 목)	제2교육관 1층
	오전 1:00(성인)	
신상수	오전 9:00	교육관 110호
태 아 부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청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원복지관
국내국외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7월 중현 기도의 창

-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감동함을 주소서.
- 2 중현의 모든 청년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4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5 교회학교에서 진행될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중현복자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전국	이병학
2교구장	교구위원장	목회사	예배위원장	예배위원장
이필성	이 훈	남선우	김종구	김종구
영안교역사	성서부장	영안교역사	영안교역사	영안교역사
최무길	이창호	차진숙	김광남	이종석
재정부장	재정부장	재정부장	재정부장	재정부장
안종욱	임무현	이갑재	전종용	전종용
감사부장	감사부장	감사부장	감사부장	감사부장
이정우	김단용	한승규	김영수	김한기
총무부장	총무부장	총무부장	총무부장	총무부장
원용철	이형수	안도현	황의만	김구형
12교구장	전도부장	전도부장	전도부장	전도부장
최운덕	이계인	박덕양	이대식	정태두
신교부장	신교부장	신교부장	신교부장	신교부장
박용규	권명옥	조종현	배준식	김영남
강사부장	강사부장	강사부장	강사부장	강사부장
이성호	최지윤	노영환	박철구	정정길
전도부장	전도부장	전도부장	전도부장	전도부장
신상수	고재승	강철형	김영은	이달용
14교구장	14교구장	14교구장	14교구장	14교구장
정창현	김승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목회부장	목회부장	목회부장	목회부장	목회부장
안석현	김연근	김장국	김중선	임창식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김은철	전하태	김신국	전계식	김영관
예배부장	예배부장	예배부장	예배부장	예배부장
장승규	전은배	서영식	구재환	송두심
신상부장	신상부장	신상부장	신상부장	신상부장

■ 부목사

정현민	박기원	류병희	김영훈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이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고광환	위대환	장 훈	임현덕
1교구장	1교구장	1교구장	1교구장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6교구장	6교구장	6교구장	6교구장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15교구장	15교구장	15교구장	15교구장
이영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원
12교구장	12교구장	12교구장	12교구장
정성현	이정훈	김대식	김성훈
9교구장	9교구장	9교구장	9교구장

■ 전도선사

정연희	신동자	윤은식	한영준	김연석
1교구	1교구	1교구	1교구	1교구
홍순호	이우주	김달자	안태순	김정현
10교구	10교구	10교구	10교구	10교구
조옥자	강덕필	최문선	전은희	김영순
7교구	7교구	7교구	7교구	7교구
김정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17교구	17교구	17교구	17교구	17교구
한성진	임태주	장영미	육지자	육지자
13교구	13교구	13교구	13교구	13교구

■ 찬양감독장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집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전임지휘자